



# 올해 사료용 곡물, 충분한 공급예상

해상운임도 안정적일 듯

**올**해 사료용을 비롯한 곡물의 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해 미국 뉴올리언스 주를 강타한 태풍 카트리나의 영향도 올해 곡물수급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두는 현재 잉여작물로, 생산량이 소비량을 능가하는 상황이고, 소비량이 생산량을 능가하는 옥수수과 소맥도 재고량이 아직 여유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곡물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상운임도 더 이상 큰 폭의 인상 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16일, 미국곡물협회 한국사무소가 주최한 '곡물무역에 관한 세미나'에서 미국곡물협회 컨설턴트인 Jay O' Neil씨는 "세계/미국의 공급과 수요"라는 주제발표와 "해상운임 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 한해 사료용을 비롯한 전 세계 곡물의 수급상황을 낙관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 옥수수 재배자협회의 Guy R. Davenport씨도 "2006/07 미국 옥수수 수급상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선 작물재배방법의 발달로 옥수수는 단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비록 미

국내 옥수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옥수수 재배자들은 충분히 그 양을 충당시켜줄 수 있다"고 장담했다. Guy씨에 따르면, 생산자들은 "경제성 있는 작물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미국의 옥수수 주정박의 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는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공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미국산 옥수수 가격 전년 대비 7% 가량 하락 예상

Guy씨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올해 옥수수 생산량은 약 2억8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05년 10월에 파악된 재고가 5300만 톤이었던 것으로 집계되어, 전체 공급수준은 약 3억3천 톤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미국 내의 옥수수 사용량은 연료로 쓰이는 에탄올 생산용(4천만 톤), 사료용(1억5천2백만톤)을 포함하여, 2억6천만 톤 정도일 것으로 보이고, 수출량은 4천6백만 톤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옥수수 1톤당 농가 수

취가격은 76달러가 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는 지난해의 '03~'04년도 95달러나, '04~'05년도 82달러에 비하면, 각각 20%, 7%가량 낮은 가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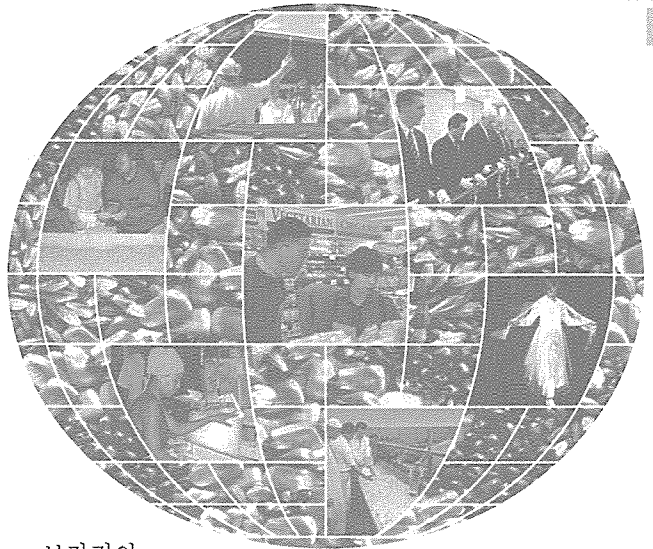
## 소맥은 재배 즐기고 있지만, 대두는 남아들아

한편 올해 전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약 6억8,300만 톤, 소비량은 이를 웃도는 6억8,700만 톤이지만, 비축량이 1억2,800만톤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옥수수 주요 수출국 가운데 하나인 아르헨티나는 올해 1천5백만 톤 생산이 예상되고, 이 중 약 1천만 톤이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통계 취합이 어렵긴 하지만 중국은 '05~'06년도에 1억3천만 톤을 생산하여, 6백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중국은 머지 않아 옥수수 수출국이 아닌 옥수수 순 수입국이 될 것이라는 것이 미곡물협회 Jay O'Neil씨의 의견이다.

소맥은 날이 갈수록 재배지가 줄고 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공학이 집중 응용되고 있는 옥수수나 대두가 재배기간도 짧고, 수익성도 높은 작물로 인식되면서, 농가들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우엔 “동맥(冬麥)이 동사(凍死)할 지경”이라고 말할 만큼 소맥 재배지가 줄었다.

대두는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05~'06년도 수요가 2억1천4백만 톤으로 예상되나, 생산은 이를 웃도는 2억2천3백만 톤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엔 대두생산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옥수수를 포함한 전체 사료용 곡물의 생산량은 9억5천8백만 톤으로 전망되고, 사용량은 9억7천만 톤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료용 곡물의 재고량은 1억6천5백만 톤으로 16.9%에 이른다.

## 미국서 한국까지 해상운임 튼당 35달러~40달러 유지할 듯 (USGulf-한국)

물건의 종류, 선적기간과 선박의 크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상운임은 lay time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겠으나, '04년도에 USGULF-일본 간 해상운임이 톤당 74달러까지 올라갔던데 비해 '06년 2월 현재에는 34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은 올해에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상운임이라는 것도 결국은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하면 올라가기 마련이므로, 아시아의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해 카트리나의 영향은 곡물선적에 잠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Jay O'Neil씨는 전했다. ㉔